

# 봉건제와 Feudalism의 사이: 인문학과 정치학의 대화를 위하여

미야지마 히로시 성균관대 교수

## 인문학의 위기?

최근 한국에서는 인문학의 위기라는 말이 난무하고 있다. 현재의 한국인문학이 위기라고 할 만한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현재의 인문학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한국만의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 것일까? 이 점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인간사회를 연구하는 학문이 인문학과 사회과학이라는 두 개의 부문으로 분할되어 양자 간의 지적 교류가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극히 약하다는 문제 - 따라서 인문학이 위기라고 한다면 사회과학도 역시 위기라고 해야 할 것이다 - 가 그 원인 중의 하나임에 대해서도 아마 이론은 없는 것 같다. 그러나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교류라는 일은 그토록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양자 간 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동아시아의 지식사, 지성사에 있어서의 전통의 단절이라고 하는 문제를, 「봉건제」라는 개념을 예로 논의하기로 한다.

19세기부터 20세기에 걸쳐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엄청난 수의 외래어가 생겼다. 그 압도적 다수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등에서 번역된 말이었는데, 동아시아에서는 이러한 외래어의 대부분이 한자를 이용해 번역되었다. 그 과정은 천 수백 년 전에 불교가 전래되었을 때 진행된 불교경전의 한역漢譯 이래의 사건이었지만, 불교 용어가 그랬듯이 19세기 이후 수용된 번역 한자어의 많은 부분도 동아시아 지역의 공용어로서 현재도 사용되고 있다.

현재 동아시아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번역 한자어는, 그 기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로는 19세기 이전에 만들어진 번역 한자어로서, 16세기 이후의 유럽과의 접촉 과정에서 등장한 말들이다. 기하, 대수 등의 말이 이 부류에 속하는데 그 많은 부분은 한역 서학서西學書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며, 일부는 일

본 에도시대의 난학서蘭學書에서 만들어진 말도 포함된다. 둘째로는 종래 동아시아 지역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을 고전 한어에서 유래하는 한자어를 이용해 번역함으로써 생긴 말들이다. 경제라는 말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데 본론의 주제인 「봉건제」라는 말도 이 부류에 속한다. 세 번째 부류는 메이지 유신 이후의 일본에서 만들어진 완전히 새로운 번역 한자어로서, 철학이라는 말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번역이라는 작업은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도 없이, 다른 언어를 자국어로 기계적으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 문명을 배경으로 가지는 두 개 언어의 소통을 도모하는 작업으로서 그 자체가 문화 접촉, 문화 충돌, 문화 변용 등의 측면을 가진 복잡한 과정이다. 번역이라는 작업이 가지는 이러한 특징에 비추어 볼 때, 19세기 이후 만들어진 번역 한자어 중에서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말들이다. 왜냐하면 동아시아의 전통지(傳統知, 전통적 지식)가 근대에 와서 어떻게 계승되어 어떻게 단절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이 두 번째 부류의 말에 집약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제라는 말은 말할 필요도 없이 economy 의 번역어로서 이용되게 되었지만 경제라고 하는 말 자체는 「경세 제민」을 생략한 말로서 동아시아 사회에 있어서 옛날부터 자주 사용되어 온 말이었다. 그러나 economy 라고 하는 영어가 경제라고 번역되면서 양자의 개념에는 일종의 뒤틀림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개념의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feudalism 이라는 말의 번역어로서 「봉건제」라고 하는 말이 채용되어 그것이 동아시아 전체에서 통용되게 된 과정이 갖고 있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봉건제」라고 하는 말은 경제와 마찬가지로 서구의 개념을 동아시아의 고전 한어를 이용해 의역한 예이지만, 경제라는 말과 달리 본래의 고전 한어로서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져 버려서

서구 기원의 의미가 통용되게 된 경우이다. 따라서 「봉건제」라는 말의 현재적 의미의 탄생은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 전통지가 포기되어 외래의 개념이 승리한다는 과정의 문제성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예라고 생각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동아시아의 고전적인 의미의 「봉건제」를 봉건제(봉건, 봉건론 등도 마찬가지), feudalism의 번역어로서의 「봉건제」를 '봉건제' ('봉건', '봉건론' 등도 마찬가지)라고 기술하기로 한다.

「봉건제」의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도 다양한 논의가 행해져 왔다. 특히 중국사의 분야에서는 명말청초 明末清初 고염무 등의 논의와 청말·민국 초기의 양계초 등의 논의에 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또한 일본사의 분야에서도 에도시대 유자들의 봉건제론이 주목을 받아 왔다. 이것들은 봉건제에 관한 논의를 대상으로 한 것인데 다른 한편 '봉건제'에 관해서도 특히 일본사에 있어서의 그 존재와 중국사·한국사에 있어서의 그 부재라고 하는 일본인의 주장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행해져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19세기까지의 봉건제를 둘러싼 논의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전개된 '봉건제'를 둘러싼 논의가 별도로 연구되어 왔다는 점, 그리고 그 대부분이 중국사·일본사에 관한 논의로서 한국사에 있어서는 19세기까지의 봉건제론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박광용의 연구가 유일한 예외이다) 등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한계에 유의하면서 논의를 진행시키도록 할 것이다.

### 19세기까지의 봉건제론

고전적인 의미의 봉건제란, 중국 고대의 이른바 삼대(하·은·주, 실제로는 西周시대)의 통치 체제를 가리키는 개념으로서 전국시대의 긴 혼란기를 거쳐 성립한 진에 의해서 봉건제는 폐기되어 이후 2천 년간은 봉건제와 대비되는 군현제에 의해 중국은

공자가 서주 시대의 사회를 이상적인 통치가 존재하던  
시대로 간주함으로써 봉건제는 이상적인 통치가 실현되던  
시대의 통치 체제로 인식되게 되었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봉건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던  
체제 개념이라기보다는 구성적인 개념이었던 점에 주목해야

통치되었다. 따라서 봉건제는 군현제와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서주 시대의 통치 체제를 봉건제라고 하는 개념으로 파악하게 된 것은 후세의 일이며 특히 공자가 서주 시대의 사회를 이상적인 통치가 존재하던 시대로 간주함으로써 봉건제는 이상적인 통치가 실현되던 시대의 통치 체제로 인식되게 되었다. 그러한 의미에서는, 봉건제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실제로 존재하던 체제 개념이라기보다는 구성적인 개념이었던 점에 주목해야 하는데 바로 그 때문에 봉건제라고 하는 개념은 중국의 통치 체제를 비판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중국에 있어서의 봉건·군현을 둘러싼 논의에 관해서는 지금까지도 많은 연구가 행해져 왔다. 그 하나의 중심은 명말청초의 지식인, 특히 청조에 신중하지 않았던 고염무나 황중희들의 논의인데, 명나라 멸망의 원인을 논하는 가운데 과도한 집권화를 가져온 군현제의 폐해를 완화시키기 위해 「군현 안에 봉건의 뜻을 담게 한다」는 것을 주장했던 고염무의 논의가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또한 청말·민국 초기의 논의에 대해서는 의회제도의 도입을 둘러싸고 군현제의 긴 역사를 가진 중국에서, 의회제라는 서구 기원의 제도가 수용 가능한 것인지에 관해서 양계초나 장병린의 논의 등에 연구자의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그리고 군현제와 봉건제를 둘러싼 논의는 어느 쪽이 민의를 보다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는지, 또한 지방자치의 장점과 단점이 어디에 있는지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었음이 밝혀졌다. 거기서 논의된 문제들은 오늘날의 정치학에서 말하는 공공성의 문제나 지방자치의 문제와도 공통되는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사에 있어서의 봉건제론은 현실의 통치 체제를 비판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현실을 긍정하기 위해서 봉건·군현론이 논의된 일본과 대조적이다.

일본에 있어서 봉건제의 문제가 논의되게 된 것은 중국보다 훨씬 늦어져서 에도 시대가 되면서부터였다. 즉 에도시대에 들어가 유교가 본격적으로 수용됨에 따라서 유교에서 이상적이라고 여겨지는 봉건제라는 개념에 비추어서 에도시대 막번체제幕藩體制의 특징이 논의되게 된 것이다. 그들 논의의 상당수는 에도시대의 일본을 봉건제의 사회로 파악하면서 군현제 사회인 동시대의 중국이나 한국보다 낫다는 내용의 것이었다. 물론 그 중에는 오규우 소라이처럼, 본래적인 봉건제에서는 무사가 토착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서 무사의 대다수가 도시에 거주하게 된 막번체제를 비판하는 의견도 있기는 했지만,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많은 유자들은 현실의 막번체제를 봉건제론을 근거로 옹호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중국이나 한국과 비교해 일본의 우위성을 발견하려고 하는 입장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서 근대 일본의 「탈아」적 일본사 이해의 선구를 이루는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봉건제에 관한 연구는 주로 중국과 일본을 대상으로 행해져 왔지만, 조선시대의 한국에 있어서도 봉건제에 관한 논의가 존재했었다. 그래서 다음에는 한국에 있어서의 봉건제론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종래의 연구에서는 간과 되던 문제를 언급해 두고 싶다.

우선 『조선왕조실록』에 대해서 봉건이라는 말을 검색해 보면, 그 대부분이 중국의 명나라·청나라와의 관계에 관해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명이나 청이 조선왕조를 책봉할 경우에 봉건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명이나 청의 입장으로는 국내에서는 군현제를 실시하면서 책봉 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 관계를 봉건 개념에 의해서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준다. 따라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군현제와 봉건제의 양자를 병용함으로써 국내외의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고 이해해야 되는데, 종래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관한 고려가 약했던 것 같다.

조선시대의 양반 지식인들도 봉건제에 관해 다양한 논의를 전개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서 소개할 여유가 없지만 특징적인 것은 그들의 대부분이 봉건제의 문제를 정전제井田制, 종법주의宗法主義 혹은 육형肉刑 등, 서주시대에 봉건제와 함께 실시되었다고 여겨지는 다른 제도와 관련시키면서 논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정전제가 실시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봉건제의 실시도 불가능하다는 논의가 많았는데, 그것은 송대 이후 중국에 있어서의 봉건제 불가론과도 공통되는 의견이었다. 게다가 이것도 중국과 공통되는 논의이지만 봉건제의 실시는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종법주의, 특히 소종법小宗法 주의를 부활시켜 그것을 실천하는 일이 강조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주지하듯이 조선왕조는 이 종법주의의 실천을 강조하면서 200년 이상의 긴 세월을 걸쳐서 종법주의가 정착되어 갔다. 이러한 조선시대의 봉건론에 비추어 본다면 에도시대 일본의 봉건론은 대단히 의도적인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것은, 정전제나 종법주의 등 봉건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다고 여겨지는 제도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한 논의였던 것이다. 특히 종법

에도시대에는 일본 사회가 중국의 고전에 등장하는 봉건제의 사회라고 했었는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같은 사회가 서구적인 '봉건제'의 사회로 파악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에도시대의 봉건제론이 하나의 담론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20세기의 '봉건제론'도 하나의 담론임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에도시대 일본의 가족제도가 그것과는 전혀 상반된 것이었는데 이러한 문제는 의식적으로 무시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의미로 에도시대의 봉건제론은 일본의 현실을 옹호하려고 하는 극히 자의적인 담론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더 언급해 두어야 할 점은 조선시대의 봉건론에 있어서 양반이라는 존재가 봉건제에 있어서의 제후諸侯와 유사하다는 논의를 많이 볼 수 있다는 현상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선시대의 양반은 중국의 사대부와 비교할 때 세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점을 근거로 조선왕조의 체제를 봉건적인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존재했던 것이다. 고염무의 주장에서는 지방관의 지위를 세습으로 하는 것이 강조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조선시대의 향소鄕所의 존재라든가 향안조직鄕案組織의 존재 등은 군현제의 약점을 보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 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쨌든 간에 중국의 사대부, 한국의 양반, 일본의 무사라는 지배층의 존재 형태를 봉건·군현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작업은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봉건제론으로부터 '봉건제론' 으로 - 19세기 말기 이후

상술한 것 같은 봉건제를 둘러싼 논의는, 19세기 후반에 들어 이른바 서양의 충격에 직면하게 되면서 새로운 국가 구상과 관련해서 다시 활발하게 전개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현상이 최초로 생긴 것은 일본에서였는데 서구 부강의 기초가 군현제에 있다고 보고 봉건적인 토쿠가와 막번체제에 의해서는 서구의 침략에 대응할 수 없다고 하는 논의가 일어났던 것이다. 메이지 유신의 과정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 왕정복고, 판적봉환版籍奉還, 폐번치현廢藩置縣 등 일련의 사태는 봉건제로부터 군현제로의 변화라고 이해되었던 바, 그 때까지 긍정적으로 평가되던 봉건제에 대한 인식이 180도 전환했던 것이다. 다만 이 시기의 봉건·군현을 둘러싼 논의는, 서구의 입헌군주제나 공화제를 시야에 넣은 것으로서 왕권의 존재를 절대적인 전제로 했던 종전의 봉건·군현론과는 질적으로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는 측면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한다.

중국에 있어서도 19세기말로부터 봉건·군현을 둘러싼 논의가 부활했다. 그것은 의회 개설의 문제나 지방자치의 문제와 관련해서 봉건·군현론을 새로운 관점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선행 연구도 많이 있으므로 여기서는 소개하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일본에 있어서도 중국에 있어서도 19세기 말 혹은 중국의 경우 20세기 초기까지, 전통적인 봉건·군현론을 전제로 한 논의가

행해지고 있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사태는 크게 변화한다. 즉 서구의 feudalism 이라는 말이 「봉건제」라고 번역됨에 따라서 전통적인 봉건 개념이 포기 되기에 이르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재빨리 생긴 것은 역시 일본에서였다. 즉 러일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일본에서는 '봉건제' 개념으로 일본사를 이해하려고 하는 견해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 선두에 선 자는 경제사와 법제사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자였다. 경제사에 있어서의 후쿠다 도쿠조(福田徳三)와 법제사에 있어서의 나카타 가오루(中田薫)가 그 대표자였는데 특히 독일에 유학한 후쿠다는 일본 중세를 '봉건제'의 시대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사에는 '봉건제'의 시대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을 제일 먼저 제출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회과학자에 의해서 처음으로 주장되게 된 일본 '봉건제론'은 마르크스주의의 영향도 크게 작용하면서 일본사 연구자의 사이에서도 수용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학계의 통설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논문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했으므로 그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여기서 논의하고 싶은 것은 에도시대에 있어서의 봉건제론과 20세기에 들어서 시작된 '봉건제론'의 관계에 대해서이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에도시대의 봉건제론과 20세기의 '봉건제론'은 별도로 연구되어 왔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가 문제로서 의식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이것은 극히 기묘한 현상이다. 에도시대에는 일본 사회가 중국의 고전에 등장하는 봉건제의 사회라고 했었는데,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같은 사회가 서구적인 '봉건제'의 사회로 파악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에도시대의 봉건제론이 하나의 담론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20세기의 '봉건제론'도 하나의 담론임에 지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또한 10세기 이전에는 중국의 고대를, 그리고 20세기에는 서구를 모델로 일본의 역사를 파악하려고 하는 일본의 지적풍토는 모델을 외부세계에서 찾으려고 한다는 의미에서 그 비자립성을 잘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봉건제론'은 일본의 학계만이 아니라 한국의 세계사 교과서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한국사와 중국사의 연구에 있어서도 '봉건제' 개념을 적용하려고 하는 입장이 존재하며 방송이나 일반 교양서에서 「조선시대의 봉건적 신분제」와 같은 표현을 흔히 볼 수가 있다.

메이지 유신 이후의 일본은 스스로가 동아시아의 일원이라는 것을 부인하면서 그 일환으로서 등장한 '봉건제론'을 중국과 한국도 수용하면서 전통적인 봉건 개념은 완전히 포기되기에 이르렀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전통적인 봉건 개념은 현재적인 의미를 전혀 가질 수 없는 개념인지, 정치학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다.

- 미야지마 히로시 「일본 '국사'의 성립과 한국사에 대한 인식: 봉건제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김용덕·미야지마 공편『근대교류사와 상호인식 I』, 2001년, 고대 아세아문제연구소.
- 미야지마 히로시 「일본사·한국사에 있어서의 봉건제론」, 김용덕·미야지마 공편『근대교류사와  
 상호인식 II』, 2007년, 고대 아세아문제연구소.
- 미야지마 히로시 「평화의 시각에서 다시 보는 일본의 '근대화」, 『창작과 비평』136호, 2007년.
- 박광용 「18~19세기 조선사회의 봉건제와 군현제 논의」, 『한국문화』(서울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22호, 1999년.
- 민두기 「중국의 전통적 정치상」, 『진단학보』29·30호, 1966년.
- 민두기 「청대 봉건론의 근대적 변모」, 『아세아연구』10-1, 1967년.
- 淺井清 『明治維新と郡縣思想』, 1939년, 巖松堂書店. \*@
- 張翔·園田英弘 共編 『「封建」·「郡縣」再考』, 2006년, 思文閣出版.